

유통업체, 셔틀버스 금지 합헌 판결 영업 손실 예상...베이커리 매출 추이 주목 돼

지난해 말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영을 정부가 올 6월 30일부터 폐지하도록 결정한 것에 불복해 유통업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지난 달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합헌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시설의 셔틀버스 운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업체들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등 한바탕 내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합헌점들이 영업전략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헌점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계 합헌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이번 현재 결정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토종 합헌점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그동안 고객 유치에 상당히 의존했던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반응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편 셔틀버스 운행 금지 이후 인스토어베이커리에도 미세한 매출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에 위치한 한 합헌점의 인스토어베이커리의 경우 약 10%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셔틀버스 운영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제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베이커리의 여름철 매출이 예년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향후 인스토어베이커리의 매출 추이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 셔틀버스 운행 금지 관련 규정

*셔틀버스 운행 불허 시설 :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 가능 시설 :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등

*백화점·대형 유통업체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

-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너무 멀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고객 수송

-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해진 지역(한시 적용)

-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이용이 극히 불편한 지역(업체~가까운 역이나 경류장간 운행만 가능)

*셔틀버스 운행 허가기간 2001년 6월 30일~9월 30일까지(허가자 시·도지사)

브레드가든, 케이크 카페 전개 홈베이킹 제품 판매로 사업 다각화

브레드가든(대표 이영진)이 최근에 홈베이킹 전문점을 활성화 시켜 케이크 카페를 오픈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부천 중동점을 시작으로 부산 연산점과 목동점, 본점에서 홈베이킹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목동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오픈한 점포로 기존 매장이 3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별도의 매장을 열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홈베이킹 케이크를 처음 접해본 고객들의 평가가 좋아 다른 점포도 복합매장을 추진해 비수기 매출 확보 및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레드가든은 홈베이킹 전문점으로 소도구와 원부재료 판매 및 공개강좌가 주요 아이템이었지만 향후 케이크 카페의 오픈으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환상 / jeong@mbakery.co.kr〉

동양산업, '오픈형 매장' 선보여 깔끔한 매장분위기로 차별화

인테리어 컨설팅 전문업체인 동양특수산업이 오픈형 매장을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오픈형 매장은 매장과 공장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의 인테리어는 기존 제과점과 차별화시켜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오픈형 매장을 통해 고객과 생산 직원과의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픈형 매장의 경우 밀가루가 날리는 등 작업과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단점도 있으나 공업용 환풍기 설치 등 세심한 시공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사는 오픈형 매장을 지난 99년 2월부터 선보였으며 케익하우스 몽마 매장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임희정 / lim@mbakery.co.kr〉